

호남 기반 민생당 총선서 '0석' ...이대로 사라지나

4·15 총선, 그 후

6선 천정배·정치9단 박지원 등 11명 현역 모두 낙마 20석 '원내 3당'에서 창당 2개월만에 준폐의 기로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한 민생당이 4·15총선에서 완패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했다.

11명의 현역의원들이 모두 낙마하면서 20석의 원내 3당이던 민생당은 창당 2개월 만에 준폐의 기로에 섰다.

특히 6선의 천정배(광주 서구), 정치9단 박지원(전남 목포), 17대 대선 후보 정동영(전북 전주) 등 호남 대표 정치인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의석 확보 기준치인 3%에 못 미치는 2.71%의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호남에서도 광주 6.36%, 전남 7.41%, 전북 6.33% 득표에 그쳤다.

이번 참패는 합당 과정에서부터 예견됐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3당이 노선이나 정책의 동일성보다는 눈앞에 다가온 총선에서의 이해관계에 얽혀 급히 합치다 보니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창당 초 당 지도부 구성부터 시작해 공

천관리위원회 갈등,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계파간 충돌 등 외형상 물리적 통합만 이뤄졌을 뿐, 하나의 당이라고 볼 수 없는 형국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광주와 전남은 시·도당 선대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각기 후보별로 알아서 선거를 치렀을 뿐 당 차원의 지원이나 전략은 없었다.

민생당 지도부가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총선 출정식을 가졌지만, 상당수 후보들마저 이 자리에 불참했다.

또한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후보들의 고사로 텃밭인 광주·전남에 지원유세를 다니지 못했다.

결국 선거 결과는 참패로 돌아왔다.

손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7일 해단식에서 "우리당이 존립 위기에 처했다"면서도 "국회의원 1명 없는 정당이지만 조직과 약간의 예산이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3지대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정화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생당의 후보들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의 후보로 나서줘 큰 희생과 고난을 감내했다"면서 "후보자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 당을 조속히 재정비하겠다"고 재건 의지를 내비쳤다. 민생당은 5월 전당대회를 준비해 새단

장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제 원외정당으로 전략하면서 인물과 자금 부족 등 각종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연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호남이라는 지지기반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거대 양당 틈 속에서 민생당이 설 자리는 좁아 보인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선거로 인해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 원외 정당으로서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낙선한 호남지역 중진들은 일부는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일부는 2년뒤 대선에서 호남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년 전엔 회초리, 이번엔 '민주당 물표'...광주민심 왜?



임중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지난 6일 광주 남구 무등시장에서 운영대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후보와 함께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文정부 성공 바람이 여당 지지로 국민의당에 좌절...세인물에 기대

20대 총선이 진행된 4년 전 광주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민심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책임을 물어 8석 모두를 당시 국민의당에게 밀어줬다.

반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8석 모두가 민주당에 돌아갔다. 4년 만에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물표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광주 동구에서 만난 자영업자 박모씨(35)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지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해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탄핵 이후 국정 쇄신과 정치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국민이 부여했다"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

분이 있는데 국민이 이것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더 잘하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의 선택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4년 전 대안으로 뽑았던 국민의당의 분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좌절감이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40)는 "4년 전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고, 이에 실망했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함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 정부와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주부 강모씨(65)는 "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태클을 많이 가는 모습을 봤다"며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좋겠지만 불분명한 이유로 무조건 일을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고려해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도 다선의 야당 현역의원 대신 민주당 정치신인에게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 만난 직장인 권모씨(28)

는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광주를 새롭게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병근 교수는 "4년 전 국민의당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보가 지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천정배 의원 등이 정치 신인이나 다름 없는 후보들에게 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제대로 된 후진을 양성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있었다고 시민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광주경찰서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내 현안에 대해 갈등 조정이나 대안제시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며 "지역민들이 표를 몰아준 의미를 깊게 새겨 과거처럼 지지율에 취해 오만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광주지역 8개 지역구 당선자들 모두 초선이다"며 "계파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4년 의정활동 기간에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경석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